

신안저축은행, 尹 장모 349억 잔고 위조범 고발은커녕

계열사 ‘미래전략 실장’ 선임, ‘특수관계’ 의혹

- 현안대응 TF, 尹 장모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 위조범 재직확인서 공개, 2017년 범행 인지한 신안 그룹 ‘고발’ 대신 2018년 계열사 ‘미래전략 실장’ 선임
- 김건희씨-잔고증명 위조범 김씨-신안저축 박 전 대표, 서울대 EMBA로 맺어진 ‘특수관계’, 수상한 범행 모의 의혹
- 김병기 단장, “윤석열의 ‘2013년 신안 수사 봐주기 의혹’ 이 이들과 얽히고 설킨 ‘특별하고 수상한 관계’ 와 관련된 부당거래는 아닌지 철저한 검증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상임단장 김병기)가 금융감독원을 통해 카카오페이증권(바로투자증권 인수)으로부터 받은 ‘김모씨’의 재직여부 문서를 확인한 결과, 윤석열 장모 최씨와 함께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 위조로 유죄를 선고받은 공범 김 씨가 신안 그룹 계열사의 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밝혀졌다. 신안 그룹은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위조범을 ‘고발’ 은커녕 계열사 ‘미래전략 실장’ 으로 재직시킨 것이다.

김 모씨 바로투자증권(신안 그룹 계열사) 재직 확인서

CPC(문서번호:2202230021-001) 회신 자료

[바로투자증권 : 인수 이전 시점]

성 명	김 (바로투자증권 근무)
재직기간	2018.10.15.부터 2020.01.16.까지
부 서	미래전략실
직 책	실장

신안저축은행의 잔고증명서 위조범 김모씨와 김건희씨, 신안저축은행 전 대표 박모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대 EMBA 과정을 함께 수학한 사이로, 이들의 ‘수상한 관계 의혹’ 이 여러 차례 포착된다. 대표적인 건이 바로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 위조사건’ 이다.

서울대학교 EMBA 2기 졸업생 명단(서울대학교 자료회신)

8	경영학과(Executive MBA)(경영학전공(Executive MBA))	김건희	2010-03	졸업
	경영전문석사(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Executive MBA))	KIM KEON HEE	2012-02	
19	경영학과(Executive MBA)(경영학전공(Executive MBA))	김 → 잔고위조공범	2010-03	졸업
	경영전문석사(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Executive MBA))	Kim	2012-02	
27	경영학과(Executive MBA)(경영학전공(Executive MBA))	박 → 신안저축은행 대표	2010-03	졸업
	경영전문석사(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Executive MBA))	PARK	2012-02	

윤석열 장모 최씨는 도촌동 16만평 땅 투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다. 최씨는 2013년 딸 김건희씨 서울대 EMBA 동기 김 모씨에게 허위 잔고증명서를 만들 것을 지시하고, 이에 김씨는 4차례에 걸쳐 349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다. 이같은 범죄 사실은 2017년 장모 최씨의 동업자 안모씨와의 재판 중 드러난다. 재판이 끝난 이듬해인 2018년, 사실상 피해자여야 하는 신안 그룹은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 위조범 김모씨를 신안 그룹 계열사인 ‘바로투자증권’의 미래전략실장으로 선임한다.

윤석열 후보 장모 최은순 씨 동업자 안모 씨 판결문 中 (2017년 대법원 확정)

잔고증명서 위조 지시

및 투자 전문가의 조언을 충분히 받았다. 또한, 최00은 김00으로부터 단순히 투자 관련 조언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도촌동 부동산의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김00에게 허위의 잔고증명서를 만들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사실 윤석열 일가와 김모씨, 신안 그룹과의 수상한 관계 의혹은 훨씬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2012년 금융감독원은 불법대출 등을 이유로 박 전 신안저축은행 대표를 고발하는데, 이듬해 검찰은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시킨다. 수사 종결 전, 장모 최 씨는 사위 尹후

보가 근무하는 중앙지검 수사 피의자인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재단 명의로 17억원의 대출을 받았고, 수사 종결 이후에도 48억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 수사 전후로 136억 상당의 지속적인 특혜대출을 해 준 의혹이 있다.

현안대응 TF의 김병기 단장은 “신안그룹 이름에 먹칠한 가해자를 ‘고발’ 하기는커녕 오히려 계열사 ‘미래전략실장’으로 선임하는 것은, 윤석열 일가와 김모씨, 그리고 신안이 서로 뒤를 봐주는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윤석열의 ‘2013년 신안 수사 봐주기 의혹’이 이들과 얽히고 설킨 ‘특별하고 수상한 관계’와 관련된 부당거래는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 하다고 밝혔다.